



광양시가 유당공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등 광양여행코스를 소개했다. 폐창고를 재생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광양예술창고.

광양시 제공

6월은 광양여행 가는 달... 광양시 역사 코스 소개

유당공원·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매천황현생가 등 역사 코스 구성 '이달의 여행 코스' 코너서 확인 "삶에 특별함 새기는 여행 되길"

광양시가 6월을 맞아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양여행코스를 소개했다.

시는 유당공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매천황현생가 등 오랜 역사가 깃든 공간을 중심으로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등 3가지 코스를 구성했다.

반일코스 '광양에서 한나절'은 유당공원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 ~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 매천황현생가 등을 잇는 코스다.

유당공원은 푸조나무, 팽나무 등 500년

을 굽은 고목과 아담한 연못이 그윽한 풍취를 자아내는 유서 깊은 정원으로 한가로운 여유를 선사해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지난 2월 105년 만에 개방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교 연습림 내에 지어진 관사로 일본 주택의 공간 구성 양식을 보여준다.

매천황현생가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절명시 4수를 남기고 분연히 자결한 매천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뒷마루가 있는 초가를 중심으로 정자와 우물 등을 갖추고 있다.

인근 매천역사공원에는 매천의 묘역, 붓과 책 등 형상화한 기념비, 영모재, 시비 등이 조성돼 있어 탁월한 문장가이자 역사가인 매천을 추모하며 거닐기에 안성맞춤이다.

'광양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는 당일

코스는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 배알도 섬 정원 ~ 즐거운 미식 ~ 구봉산전망대 ~ 광양와인동굴 ~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 ~ 인서리공원 ~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코스다.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망덕포구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의 친필유고를 지켜낸 정병욱 가옥과 시 정원이 있으며, 별 헤는 다리를 건너면 배알도 섬 정원이 방문객을 맞는다.

해발 473m 정상에 설치된 구봉산전망대는 탁 트인 조망으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선사하고, 페터널을 재생한 광양와인동굴은 낭만 가득한 여름피서지다.

'광양에서 별 헤는 밤'은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섬진강망덕포구까지 광양의 자

연과 문화를 두루 여행하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1박 2일 코스다.

첫날은 백운산자연휴양림 ~ 매천황현생가 ~ 즐거운 미식 ~ 인서리공원 ~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 ~ 마로산성 ~ 구봉산전망대 ~ 이순신대교 코스다. 둘째날은 김시식지 ~ 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 등에서 1박 2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황톳길(맨발체험장),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웰니스 관광지다.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등은 광양시청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최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K-푸드로 등극한 김을 최초로 양식한 김시식지도 이색적인 역사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테마여행의 '이달의 여행코스'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6월 광양여행 코스는 유당공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매천황현생가, 김시식지 등 광양에만 있는 고유한 공간들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잠깐 스쳐가는 여행이든, 오래 머무는 여행이든 소중한 삶에 특별함을 새기는 광양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월별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마실 거둔 떠나는 한나절 코스부터 구석구석 전민목을 발견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까지 소요시간, 동선 등을 고려한 여행코스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정인화 시장, 도심지 열환경 개선 현장 살펴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인 '5월 중재3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상업·문화·교통 등 중추 기능이 집중된 중마중앙로에 열환경 개선 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수목 식재 종류 및 패턴 등 연결숲 조성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시민 보행환경과 수목 생육환경 등을 살폈다.

정 시장은 보도 위에 녹지를 조성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녹슬고 휘어 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 등 노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토록 지시했다.

이어 도심권 내 녹지대 속에서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권부두사거리 일원 시민건강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주변 조경수와 의 조화 및 수목 생육환경 등을 면밀히 점

검했다. 정 시장은 녹지대 조경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녹지대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그늘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초본류 식재와 세척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이 일하고 걷고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녹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시민이 직접 색을 입히는 시민 중심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 초청

민주평통동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 섬진강 이웃사촌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를 가졌다

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에서 김기흥 부시장, 서영배 시의장, 남기호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고 하동군에서는 최치용 기획행정국장, 이하옥 군의장, 임태경 협의회장 등이 방문해 양 지역 자문위원 100여 명과

상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식전 행사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체험 프로그램 △불나비공연단의 퓨전장구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는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지자체 남북 교류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논의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드림라이온스클럽, 취약가구 집수리 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35-B3(전남동부)지구 광양드림라이온스클럽 회원 10여 명이 지난 25일 광양을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200만원 상당)와 주거 청소 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도배 장판, 노후 콘센트 및 전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고장 난 변기 교체, 베란다 방수 및 페인트, 주방 청소 등을 실시했다. 광양=안영준 기자